

## 송암 권오록 고문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오른손이 한 일을 가끔은 원손이 알아도 된다



송암(松巖) 권오록(權五鹿, 주밀공파, 35세) 고문이 지난 3월 3일 국민추천 포상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권오록 고문은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창궐할 때 2020년 3월 10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상북도에 5억이라는 거금을 기부하였다. 이렇게 거금을 기부한 이유에 대해 권오록 고문은 “8.15 광복 무렵 고향에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침 놔주시고 했는데…요새 코로나 퍼지는 거 보니까 그 모습이 불현 듯 떠올라 뜯기로 마음 먹었지요”라고 말한다. 또한 “대구는 큰 도시고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 경북 다른 지역들은 시골이라 상대적으로 손길이 덜 모일 것 같았다”고 경상북도에 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훈장은 이처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에 대해 국민들이 추천하고 정부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동백장과 목련장 그리고 석류장이 있다.

권오록 고문은 1989년에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고, 1996년에는 은평구청장을 끝으로 34년간 근무한 서울시 공무원을 정년퇴직하면서 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공무원 재직과 퇴직 시에 표창받은 훈장이고 이번에 수상한 3번째 훈장은 순수하게 국민들이 추천하여 수상한 국민훈장이다. 또한 훈장을 수여한 대통령은 1989년은 노태우 대통령, 1996년은 김영삼 대통령이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세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훈장을 받는 진기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권오록 고문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모교인 대동세무고에 2016년 1억, 2017년에 1억 총 2억원을 기부했다.

사회복지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3회에 걸쳐 총 7억원, 대한적십자사에 2017년 1억, 2018년 1억, 2019년 1억 등 총 3회에 걸쳐 3억원 기부, 어린이재단에 2억, 푸르메재단에 5억, 서울시우회에 1억, 안동권씨 대종회에 1억 등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8회에 걸쳐 총 21억원을 기부했다.

권오록 고문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된 마음의 계기는 뭘까. 또 가정환경 등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잠재되어 있을까. 권오록 고문은 아버지(권영국權寧國, 34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경기도 연천 백학면 부농(富農)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겨울마다 곳간을 열어 마을 주민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강습소를 세워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선행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교육이 된 선이다. 아버지께서 아무 말없이 묵묵히 실천하셨지만 아직도 눈에 선하고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모습들이 지금의 나를 이끄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수년 동안 기부를 할 때마다 ‘얼굴 없는 기부’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실명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권오록 고문은 이렇게 말한다. “오른손이 한 일은 가끔은 원손이 알아도 된다는 게 지론이 됐어요. 아들, 손자 뺨 되는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부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어요?”

권오록 고문은 잘 아는 지인은 “90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마음이 소년같이 맑고 밝다. 늘 긍정적이고 누구든지 불러 먹여려 한다”고 귀띔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 권영복 산청지역종친회 회장 단성향교 전교 선출



권영복(權永福, 복야공파, 36세) 산청지역종친회 회장(대종회 부회장)이 3월 27일(토) 단성향교 전교(典校)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신임 권영복 전교는 선출과 동시에 임원들과 함께 대성전에서 전교 고유례를 봉행하였다.

단성향교는 1123년 고려 인종 5년에 창건되었고, 1728년 영조4년에 건립된 명륜



당이 2020년 국 가지 정문재화 보물 제2093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곳이다.

단성향교 총무장의 권병국(산청 청장년회장)

## 권정복 심칙시의원 삼척향교 춘기(春期) 석전대제 봉행

권정복 심칙시의원이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삼척향교(전교 김성수) 대성전에서 성현을 추모하는 춘기 석전대제에서 아헌관으로 봉행했다. 이날 권정복 시의원은 제례가 시작되기 전 제1부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 권 의원은 축사에서 “향교는 저에게 특별한 장소다.

어머니께서 몸을 못 가누시는 할아버지 를 10여년 동안 봉양했었는데 이를 동네 주민들께서 추천하여 어머니께서 1995년 바로 이 자리에서 “효부상”을 수상하셨다. 그때 돌아가신 아버님과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했었기 때 문에 오늘 이 자 리가 더욱 더 감 화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삼척 향교는 1398년 (태조 7)에 현유 (賢儒)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 건되었다.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2 호로 지정되어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 권원강 교촌에프앤비(주) 창업주 100억 기부

권원강 교촌에프엔비(주) 창업주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회환원을 위한 시제 100억원을 출연한다. 일명 교촌치킨이라고 불리우는 교촌에프엔비(주)는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다. 권원강 교촌에프엔비(주) 전 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 인물로 통한다. 젊은 시절 노점상, 해외 건설노동자, 택시 기사 등으로 전전하다 1991년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10평 남짓 한 작은 가게로 문을 연 교촌치킨은 권원강 전 회장의 정도경영(正道經營)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상생을 실천하며 국내 치킨 브랜드 순위 1위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로 당당히 성장했다.

권원강 전 회장은 “교촌의 지난 성장은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사회 환원을 통해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권원강 전 회장은 평소 교촌의 지속적인 성장과 과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려나 전문경영인을 맞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왔는데 지난 2019년 창립기념일에 회장직에서 물려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권원강 전 회장이 출연한 100억원은 공익재단법인 설립, 상생기금 조성 등 사회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권원강 전 회장은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명예박사이며 2009년부터 대구음식문화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1년 제3회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 동정



▲ 능 소 능  
수 권정택 權  
貞澤 대종회  
상임 위원 이  
행주서원 정  
기 종회에서  
행주서원 원

회 대외공보이사, 대한두경부종양 학회 총무이사를 지냈다.



▲ 신임 권  
오진 울진교  
육지원청 교  
육장이 2일  
취임했다. 권  
교육장은 안  
동대 영어교  
육과를 졸업하고 봉화 물야중학교

에서 교편을 잡은 뒤 서보중학교 교장, 청송중·고 교장, 봉화교육지원청 및 안동교육지원청 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 권영 휴  
한국농수산  
대학 조경학  
과 교수가 제  
25회 농업인  
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

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청년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화훼 및 정원교육, 귀농 및 귀촌인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특강, 농업 및 조경분야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등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 권준명  
세종병원 인  
공지능 빅데  
이터 본부장  
이 '2020 보건  
의료 기술진  
흥 유공자 정  
부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권 본부장은 전문의 본연의 진료 업무 수행은 물론 인공지능 연구자로서 의료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권현석(40)  
씨가 안성청년  
회의소 51대 회  
장으로 취임했  
다. 신임 권 회  
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반  
세기 동안 선배님들이 쌓아온 옛 명  
성과 노고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임기  
동안 회원들과 화합과 우정을 돋독히 해 나가겠다”며 “경제가 어렵지  
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이 열  
정과 패기로 솔선수범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안동권씨 종보 구독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47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권문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100만 족친 여러분의 소통공간으로서 모든 족친에게 열려 있습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으로서 모든 족친에게 열려 있습니다.

본지는 100만 족친과 함께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종보 활성화 방안으로 족친님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독자 1명 추천에 <10.000원>의 사례금을 즉시 지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구독신청 연락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입금 계좌 : 033237-04-006941(국민), 예금주 : 안동권씨 대종회

##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